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적 경건하게 묵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 멸망했던 소들과 고모라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워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날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동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0장 1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7월 18일 (토) 제 154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동성결혼 합헌 후폭풍, 5년래 종교 자유 위협 경보

바나리서치, 성인 1,012명 설문조사 통해 미국인들 생각 8가지 발표

동성결혼 합헌 판정이 내린 지 3주가 지났다. 아직까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상반된 감정이 교차되는 가운데, 절대적인 대다수인 미국 보통 사람들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는 설문 조사가 드디어 나왔다. 향후 '2016 대통령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를 양분시킬 정도로 그 여파를 짐작할 수 없는 동성결혼 합헌...

바나 리서치는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자마자 이틀만에 걸쳐 (6월 27-28일)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1,012명에게 집과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반응을 물었다(3.1% 오차율, 95% 신뢰도). 따라서 다음과 같은 9가지 사실들이 발견됐다 (Christians React to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8 Key Findings).

1. 미국인들 대부분의 의견이 갈라져 있다.

동성결혼 합헌 판정이 미국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증거를 이변 설문 조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거의 반절에 가까운 미국인들(49%)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43%는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7%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 사회가 분열되지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동성결혼 합헌이 앞으로 미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었다. 이 설문 역시 긍정적(37%), 부정적(40%)으로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의 도덕적 정당성에도 52%가 옳다고, 43%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연방헌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52% vs. 38%로 갈라지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의 법적 인정은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인들의 의견은 분명하게 갈리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단지 시간문제라고 응답했다. 62%가 동성결혼 법적 인정은 필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예외다. 31% 정확하게 미국인들의 평균적 절반에 해당되는 복음주의자들만이 그렇다고 바라보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성연애자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진보 진영이 자신들이 "혐오/증오 범죄"의 대상이기에, 흑인들의 민권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평등권'을 주장하는 논



연방대법의 동성결혼 합헌 판정은 2016년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까지 그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리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55%가 1960년대 시작된 흑인 민권 운동과 동성연애자들의 사랑할 권리 자체를 비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신앙/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연방대법 판정을 많이 지지하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지를 밝히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믿는 신앙/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분명하게 동성결혼 합헌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거나 문화적으로 따라

야 할 추세이기에 신앙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43%)과는 달리, 주종이나 주일에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28%)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4. 복음주의자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단연코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믿음이나 신앙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보다 성경적, 신학적으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은 절대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반대한다(94%).

(3면으로 계속)

훌륭한 리더는 감사를 표현한다!

WSJ, 듀크대 도라이스와미 정신의학 교수의 '감사관련 성공적 리더십' 소개

직장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는가? 가장 최근 직원, 동료, 또는 고객에게 진심 어린 감사 편지를 보내거나 진정성 있게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 선물을 보낸 적이 언제였을까? 너무 오래 전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최근 2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자, 감사를 표하는 상사가 더 성공적일 것이라는 점에 거의 모든 이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듀크대학 정신의학 교수이자 듀크대 의료센터 의사인 무랄리 도라이스와미 박사는 훌륭한 리더의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조직이나 직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말한다(Why Thanking Employees Can Make for a Better Leader?).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의 노고와 도움에 대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라며 당연시 여긴다. 또는 직원 보상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회사에서 머그컵을 하나 더 받는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메시지로 직원들이 받아들일까?

이와 관련해 과학적인 연구가 일반적인 통념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3년 심리학자 로버트 A. 에몬스와 마이클 E. 맥컬로우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3개의 그룹이 비교됐다. 첫 번째 그룹은 감사했던 일을 주 1회 기록했다. 두 번째 그룹은 짜증났거나 불쾌했던 일을 기록했다. 세 번째 그룹은 단순히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모든 사건을 기록했다. 10주가 지난 뒤에 첫 번째 그룹은 훨씬 더 낙관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었을 뿐 아니라 병원에 내원하는 빈도가 낮아졌고, 운동하는 횟수는 늘어났다.

그 이후 잇따른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정도가 커지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재정 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경제 조사보고서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점이 증명됐

다. 최근 구글은 4000명의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지디엔에이(GDNA)로 명명한 연구를 시작했다. 직원의 행복감이 어떻게 업무 몰입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다.

직장 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고마움의 표시가 숙면을 취하게 해주고 기분을 더 좋게 해준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 결과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마움의 표시는 놀라게도 전반적인 건강과 미래의 질병과 관련한 위험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고 자신이 이끄는 팀의 성공을 돕고 싶다면 자주 다른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필요가 있다. 직원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 의미 있을 수는 있지만 유일한 감사 표현 방법은 아니다. 직원이 거둔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 진심 어린 말을 몇 마디 하고, 직원을 점심식사에 초대하는 것 역시 뜻 깊을 수 있다.

(12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 3. 박사: 목회학(D.Min)
-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ABHE, ABHE, TRACS, ATS 정회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IS, 라마단까지 테러 투쟁 촉구 수단 삼아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16면
인/터/뷰
신혜지 양(브롱스파크고 11학년)

퍼спек티브스 세미나의 새 이름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세계선교의 성경적Biblical, 역사적Historical, 문화적Cultural, 전략적 Strategic 관점을 단순히 공부하는 데서 헌신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무브먼트)

[업그레이드 된 World Christian Movement Seminar]

KIM Mission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은 지난 13년 간 집중 보급해 온 미션 퍼спек티브스2 한국어 세미나를 전폭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이름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로 변경합니다. 사실 미션 퍼спек티브스 세미나의 정확한 영문 이름이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이고 그 의미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양성 운동을 위한 (선교) 관점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퍼спек티브스 세미나를 듣고 공부하고 수료한 한국인 수료자 (한국 약 2만 명, 미국 약 4000명)의 약 90%가 이 세미나의 진정한 목적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양성 운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내 가지 관점: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전략적 관점)을 공부하는데만 열중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4-5년간 이 세미나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양성 운동 (The World Christian Movement)"으로 훨씬 흥미롭고 실제 헌신으로 유도하는 업그레이드 작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이 세미나를 진행한 여러 미주한인교회들이 놀라게 부흥하며 선교에 헌신하는 모습과 이 운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헌신한 김 미션의 평신도 이사진과 후원그룹 한분 한분의 헌신 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션 퍼спек티브스2 세미나 명칭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로 변경하여 미주한인교회와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사회, 그리고 여러 선교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 섬기기로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단체들 (선교한국 등)을 통해 계속 보급될 기존 한국어 [미션 퍼спек티브스 세미나]도 적극 후원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된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Seminar]는 4가지 퍼спек티브스 플러스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특징들 Trends'와 '한국(조선)교회 초기 선교 역사에서 배우는 선교전략' + '90여개 국 선교지를 직접 탐방하여 연구/분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선교 컨설팅' 등을 포함합니다.

김 미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는 국내외 어디든지 찾아가서 무료로 보급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김 미션 동역자들은 대표로부터 평회원까지 자비량으로 섬깁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 Christian Movement 이 전 세계로 확산 될 수 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피터 왜그너 Peter Wagner 박사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라고 외친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을 기억합니다.

[제49기, 제50기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브라질 아마존 세미나]
제49기 아마존 현지 교회 지도자 세미나 (9월21-25일, 마나우스에서 아마존 강 상류 18시간 지역)
제50기 마나우스 한인교회 및 선교사 부부 초청 세미나 (9월25-27일, 마나우스한인교회당)
· 주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강사: 바나바스김선교사(KIM Mission 대표), 김용식 목사 (상파울루영광교회), 지적진선교사(마나우스), 최도문 박사(전임이사장), 송하균 장로(부이사장), 강동철 집사 (부이사장)

* 연락처: 김 미션 본부 (626. 354. 2294 혹은 213. 215. 9834)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시론

사슴나무골에서(19):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미국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은 한국의 광복절과 같은 날로 7월 4일(Fourth of July)로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식민지로 분할 통치되고 있었는데, 그중 13개 식민지자주들이 소위 대륙회의를 구성하고 1776년 7월 4일 마침내 자주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미국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국가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축하하며 독립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통적인 소중한 미국의 가치기준들을 하나 둘씩 상실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얼마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서는 흑인 교회에 백인 우월주의 청년 하나가 총을 들고 나타나 무차별적으로 담임목사를 비롯한 흑인 성도 9명을 사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인종차별 혐오범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연방대법원에서는 미국 헌법의 근간과 전통적 가치관을 송두리 채 뒤집어엎는 엄청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언약적 관계가 아니라 하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한지 올해로 239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간 자유 민주주의의 이상향이자, 기독교 신앙의 천국과 같은 나라로 여겨질 만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동경과 고움을 받아 온 나라였습니다.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도 분쟁과 고통이 있는 곳이 있으면 정의로운 이름과 명분으로 달려가서 전쟁과 도움을 마다않는 흑기사요 막강한 슈퍼맨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나 중산층의 몰락, 높은 실업률, 치솟는 교육비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교육 시설과 예산, 제조업의 붕괴와 해외로의 탈주로 인한 지속적인 기업의 도산, 건강 의료보험 제도의 실패로 전반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의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위에 이제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통적 가치마저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개국 정신에 근거한 전통적 가정마저 그 존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마지막 때의 타락과 혼란의 모습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서운 것은 이러한 예견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무서운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이 마치 도적처럼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동요되지 말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장).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IS, 라마단까지 테러 투쟁 촉구 수단 삼아

뉴스위크, 금식 절제 기간 맞아 3개 지역 IS 공세 보도

수니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공격의 수위를 높이라고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이슬람국가(IS)는 아부 모함메드 알-아드나니 IS 대변인을 통해 이 같은 음성 메시지를 배포했다. 메시지는 또 라마단 서쪽의 하디타가 곧 IS의 지배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IS는 이날 "우리는 성월인 라마단의 도래를 축하한다"면서 "이번 라마단을 맞아 순교자가 되기를 열망하라"고 독려했다.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에서 더 많은 공격을 감행하라고도 촉구했다.

라마단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에게 이슬람경전인 '코란'을 가르친 것을 기리는 성월이다. 올해는 지난 18일에 시작됐으며, 매

년 시작일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 기간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을 섭취를 금하며 각종 금욕을 강조한다. 평화를 강조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분쟁을 하다가 이 기간만큼은 갈등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는 지난해도 라마단 기간을 활용해 자신들의 전략을 펴는데 집중했고, 올해도 오히려 이 기간 공격을 감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금식과 절제를 통해 경건을 다지는 라마단마저도 IS의 투쟁 수단이 되고 있는 현상을 보도했다(Triple Attack On Three Continents May Signal ISIS Ramadan Strategy).

지난 6월 26일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튀니지의 휴양지 수스 리우 임페리얼 호텔 부근의 공공 해변에서 검은 반바지와 T셔츠 차림의 라피크 엘 켈리(20)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하얀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있었다. 해변은 유럽에서 온 수십 명의 관광객 차지였다. 옆드려 선뎠을 하거나 아이들과 노는 사람들도 있었다.

엘 켈리는 해변에서 누듯이 쉬려는 여는 현지인과 닮았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비치 파라솔에는 공격용 자동소총이 숨겨져 있었다. 관광객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나 관광객



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IS는 혼돈의 힘을 널리 퍼뜨릴 수 있다.

IS 라마단 공세의 전략적 목적은 복잡하다. 시리아에서 진행 중인 군사 공격은 IS가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려는 힘의 과시를 의미한다. 동시에 소위 IS 수도인 시리아 라카가 쿠르드족 민병대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테러 공격을 다른 나라로 널리 확장하고 있다.

또한 IS는 종교적 표적을 공격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종교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 쿠웨이트처럼 지금까지 안정을 유지했던 나라들을 위태롭게 만들려는 전략이다. 미국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들" 부추겨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 "순교자 되라" 촉구

튀니지 테러 제2의 용의자 체포했다면 배경 밝힐 단서 기대

들을 향해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호텔 입구로 뛰어 들어가며 계속 총을 쏘다. 호텔의 튀니지인 종업원과 엘 우니는 그가 로비에서 튀니지인 경비원 1명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IB타임스에 말했다. 독일인 부부를 뒤쫓아 가면서 경비원에게는 발을 겨냥해 총을 쏘다. 그 광란으로 3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우리는 "튀니지의 이슬람국가(IS) 대원은 리비아나 시리아에 있는 그들보다 덜 무섭다"고 말했다. "적어도 이들은 튀니지인은 죽이지 않는다."

비슷한 시간에 중동과 유럽에서도 테러 공격이 있었다. 쿠웨이트 시티의 시아와 사원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했고, 프랑스 리옹에선 미국인 소유 회사의 공장에서 괴한이 고용주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참수했다. 3건의 테러 공격이 세 대륙에서 3시간 안에 발생했다.

IS는 그중 쿠웨이트 자폭테러만 자신들의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2건도 이전의 IS 공격과 유사한 점이 많다. 6월 26일의 동시다발 테러는 IS의 라마단 공세

와 관련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슬람 단식 성월 라마단은 6월 17일 시작했다. IS는 라마단 기간에 동조세력의 총궐기를 촉구했다.

이번 테러 공격의 용의자들은 전부 현지인이며 테러단체에 연루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외로운 늑대'(lone wolf,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프로필에 들어맞는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극단주의 무장 단체에 합류하지 않고 자국에서 테러를 감행하는 세 포들을 가리킨다. 그들의 공격은 IS가 뜻이 맞는 '외로운 늑대'들에게 라마단 동안 세계 도처에서 독자적인 공격을 촉구한 데 대한 화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이크 아부 무함마드 알-아드나니 IS 대변인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음성 성명에서 "라마단을 세계의 무슬림에게 승리의 달이 되게 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의 쿠파르(이교도)에게 참사와 패배, 치욕의 달이 되게 하라."

거의 동시에 발생한 이 3건의 테러는 IS가 세계 전역의 '외로운

늑대'들에게 자국 내 표적을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미국 워싱턴 소재 근동정책연구소의 IS 전문가 앤드루 태블러는 "앞으로 외로운 늑대들의 공격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감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다. IS는 시리아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원격 조정해 현지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

전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혼돈에 빠진 나라는 IS가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니 모든 무슬림이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기에 안성맞춤이다.

IS의 라마단 공세는 지난 6월 25일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날 IS는 주요 공격 목표인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도시 코바니를 급습해 민간인 200여 명을 학살했다고 알려졌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form.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name, founding year (1986), website (www.midwest.edu), and details about degree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and study options.

동성결혼 합헌 후폭풍, 5년래 종교 자유 위협 경보

(1면에서 계속)

이 수치는 미국인 평균 43%보다 두 배 이상이고, 믿음대로 사는 크리스천들(66%)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복음주의자들은 또한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미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86%). 동일한 맥락에서 동 판결이 복음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도 부당하고, 연방헌법으로도 보호받아야 하는 안된다고 응답하고 있다(각각52%).

5. 40대 미만 믿음대로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은 규범이 된다.

동성결혼, 낙태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 나이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40대 미만의 젊은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에 따라, 이번 판결에 대하여 불과 35%만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수치는 같은 나이 또래 미국인들 평균이 61%에 비하면 -26% 정도나 떨어지는 수치다.

같은 연배에서 명목상으로, 문화적으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젊은 크리스천들은 무려 73%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지지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결혼제도의 정의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존중하는 면은 상당히 빈약하다. 55%만 40대 미만의 믿음대로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제도와 가치에 대한 교회공동체의 전면적인 교육과 바람직한 실천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미국인들 대다수는 나이나 신앙에 상관없이 종교적 기관들이나 성직자들이 강요로 인한 동성결혼 장소 임대나 결혼집례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인들 중 19%만이 종교적 기관이나 성직자가 동성애 배우자들의 결혼에 관한 모든 부탁들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미국인들조차도, 76%가 강

요나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른 장소 임대나 예배 예식 집례에서 종교적 단체나 성직자들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들은 26%나 입법이나 행정 명령으로 종교적 단체나 성직자들이 동성결혼 예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사업체의 경우, 동성결혼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도 역시 미국인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인들은 종교적 단체나 성직자가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동시에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나 사업체에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 평균으로, 35%가 비즈니스나 사업체가 동성결혼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40세 미만의 미국인들은 44%가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믿음대로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33%), 나이 든 크리스천들(27%)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8. 나이 든 크리스천들과 보수, 복음주의 신앙 그룹들은 종교적 자유의 미래를 염려한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로 인해 미국인들 중 거의 과반수(56%)가 향후 5년래 미국에서 종교적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바라본다. 이러한 관심과 염려는 나이가 들수록 심화된다. 40세 이상의 미국인들 중 62%(40세 미만의 미국인들은 45%)만이 종교적 자유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일수록 이에 대한 염려와 관심은 증폭된다. 40대 미만의 믿음대로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이나 나이 든 크리스천들은 동일하게 77%가, 그리고 복음주의자들 중 93%는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에서의 종교적 자유가 점점 더 위축되고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자기관리(1)-목사다운 목사

목회를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목회를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옳은 발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를 재는 가능자가 제각각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반적 인식은 많이 모이고 건물이 반대하고 예산이 많은 교회를 대형교회로 그리고 성공목회라고 지칭한다.

솔직히 목회란 성공이나 실패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현장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로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대형교회가 되기까지는 때와 장소를 잘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의 탐과 눈물 그리고 각고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통과 절망의 언덕을 넘어야 했고, 아픔과 시련의 계곡을 건너야 했다. 그렇게 일궈낸 성공을 난도질하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목사다운 목사

5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의 경우 지역 환경과 여건 때문에 성장장애의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50명을 올곧게 양육하고 청지기로 키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돌파구가 열리고 성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교회는 목회자의 신앙과 최선을 다하는 열정에 의해 좌우된다. 교인이 50명이라는 이유로 양육과 돌봄을 내팽개치고 목양을 소홀히 한다면 50명도 점차 감소되기 마련이다.

대형교회 목사라고 큰소리쳐도 안 되고 소형교회 목사라고 몽니를 부릴 필요도 없다. 그런 면에서 목사의 자기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는 26세 되던 해 가을 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임직 후 선배 몇 분을 인사차 방문했다. 평소 존경하던 선배에게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고 일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라고 했더니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시오"라고 말해주었다. 필자는 일평생 그 말을 뇌리에 새긴 채 지을 수가 없었다. 사람다운 사람 찾기가 힘들어졌다.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도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리더십이 흔들리고 교회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는 것은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될 사람 때문이었다. 물론 반기독교 집단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공격도 빼놓을 수 없다.

자기관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목회자로서 '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회의장으로 가고 있었다. 회의 책임자로서 그날 다루어야 할 서류들을 뒤적이며 보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필자를 바라보며 "실례합니다만 혹시 목사님이세요?"라고 물기에 "아, 네. 그렇습니다만 저를 아십니까? 교인이세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아닙니다. 저는 교인도 아니고 손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목사인줄 아셨습니까?"라고 묻자 "분위기가 목사님이신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했다. 예기치 않은 대화였지만 천만다행이다 싶었다. 그때 필자의 인상이 조폭두목이나 절도 도둑범으로 비치지 않았다는 것이 고맙기까지 했다.

늘 선한 얼굴, 싸우려는 몸짓, 덤벼듯한 표정, 거친 말투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모습이 되면 안된다. 그런 면에서 최후의 순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스테반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격이나 생김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아 태어난다. 그러나 후천적 노력과 관리에 따라 개선도 교정도 가능하다.

내성적 성격으로 의기소침하고 대인기질이 있는 목사가 있었다. 교인과 마주앉아 원만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설교 시간에도 회중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담임목사실로 들어가 버리는 그를 교회가 반길 리 없었다. 그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3년 되던 해부터 교인들의 불평이 이 입, 저 입으로 건너다니면서 목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마주 앉아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은 '갈 곳이 없다. 가본댕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다. 그렇다면 목사가 변해야 된다'였다. 그리고 한 가지씩 고쳐야 될 것들과 바뀌어야 될 것들을 노트에 적고 고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잠잠해지고 목회현장은 안정되어 25년 목회를 끝으로 수년 전 은퇴했다.

IS, 라마단까지 테러 투쟁 촉구 수단 삼아

(2면에서 계속)

지난 1월 코바니에서 퇴각한 IS가 6개월 만에 다시 코바니에 침투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그전까지 시리아에선 쿠르드족 민병대가 약진을 거듭했다. 지난 6월 중순 IS는 터키-시리아 국경지대의 요지 텔아비야드에서 밀려났다. 쿠르드족 민병대는 터키와 라카 사이의 IS 주 보급로를 차단했다.

시리아의 외국인 전사들을 연구하는 피터 반 오스테옴은 "텔아비야드에서 쫓겨나고 쿠르드족 민병대가 라카를 압박하자 IS의 라마단 공격이 약간 지연된 듯하다"고 말했다. IS 지도부가 '외로운 늑대'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직접 지원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IS가 그들을 부추기고 투쟁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다.

쿠웨이트시대의 시아파 사원 자폭테러는 IS가 그 나라에서 테러 공격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첫 사례다(AP통신에 따르면 IS의 '윌라야트 나즈드'/'사우디아라비아지역 지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에서 시아파 사원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6월 26일 금

요일 쿠웨이트시에서 시아파 신도가 가장 많이 찾는 이맘 사디크 사원의 기도 시간에 감행된 이 자폭테러로 최소 25명이 숨졌다.

반면 튀니지의 테러 공격은 종과 갈등과는 무관하며, 국내 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관광 부문을 공격해 튀니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 오스테옴 분석가는 "튀니지를 IS의 비옥한 온상으로 만들려면 경제 부문을 공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튀니지의 리우 임페리얼 호텔은 완벽한 표적이었다. 그 호텔의 투숙객과 종업원 다수는 라마단을 지키지 않았고, 남녀가 함께 해변에서 놀 수 있다.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금기시하는 행동이다. 또 그 호텔은 유럽인 관광객으로 가득했다. 지난 3월 튀니지 수도 튀니스의 바르도 박물관에서 무장 괴한의 무차별 총격으로 관광객 22명이 사망한 뒤 튀니지 관광비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4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관광객을 표적으로 한 공격이 발생하면서 튀니지의 허약한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공격

직후 벨기에 항공 제트어플라이가 튀니지 노선 운항을 중지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6월 26일의 테러 공격 3건은 국제사회의 커져가는 걱정거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IS 세파가 곳곳에 숨어 있으며, 그들은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고, 또 서로 공조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반 오스테옴 분석가는 "대다수 서방 국가에 그런 세파가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부름에 곧바로 응한다. 또 서로 보조를 맞추려고 IS와 연락을 취한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국가 지도자의 생각은 다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가 우리의 적은 분명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그 사건들 사이의 확실한 연결고리는 없다"고 말했다.

베지 카이드 애셉시 튀니지 대통령은 AFP 통신에 "튀니지는 테러에 홀로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글로벌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IS가 두각을 나타낸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런

전략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이라크·시리아의 이웃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IS 전사들의 출신지인 유럽 국가들도 자국의 테러를 막기 위해 독자적인 전략을 시행했다. 그러나 그 전략은 국지적으로만 적용되며 서로간의 정보 공유도 제한적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년 동안 테러 대응에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쿠웨이트를 '소중환 파트너'로 부르며 그곳에서 IS 테러리스트 용의자 12명을 체포한 쿠웨이트 당국을 치하했다. 쿠웨이트는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예요원 80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번 시아파 사원 자폭테러는 그런 조치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 대다수는 공격 도중이나 그 직후에 사망한다. 그러나 튀니지 당국은 이번 총기난사에 연루된 제2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독자적인 자생 테러의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er & Dr. Stephen Park
-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목회 초년 (3)

목회 초년이 무리익을 무렵 목포 달리도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기 위해 주소를 받아들었을 때 목포 시내 한 복판에 소재한 교회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주소지가 목포시 충무동이였기 때문입니다.

부임 당시 섬 마을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본래 그 섬에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서로 자신들의 마을에 건축하자는 주장으로 큰 마을 사람들과 작은 마을 사람들의

분쟁이 증폭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섬을 오고가는 페리호는 하루에 두 번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포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배를 타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30분 걸리는 배길에서 오른쪽 줄은 큰 마을, 반대편에는 작은 마을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등 돌리고 있던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서로 미워하며 거리를 두고 있을

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학생들이 모여 철야 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잠깐 사택에 들어왔을 때 긴급히 부르는 소리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한 자매가 마루로 된 예배당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두 명의 다른 자매들이 있었는데 번갈아가며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교우 모두가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비몽사몽간에 교회 앞마당에 군부대의 트럭이 정지하더니 군인들이 마당에 가득한 것을 보고는 군대 귀신이 왔구나 생각하여 교우 모두에게 비상 연락을 취하여 전 교인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전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 가사가 “예수의 피”라는 구절이 나오면 이 자매는 마치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혀를 길게 내밀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주께서

답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왔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의 입을 통하여 작은 마을 형부에게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바다로 갈래 아니면 온 곳으로 갈래”라고 물었습니다. 온 곳으로 가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하자 자매의 몸이 넘어뜨리고 광음을 지르며 귀신은 떠났습니다.

자매는 4시간이 넘도록 죽은 듯이 긴 잠에 들었습니다. 본래 네 자매들이 제가 부임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건축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자 만민니와 형부는 작은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형부는 큰 마을 교회에 남아 있는 나머지 세 자매를 설득하여 자신의 교회에 오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득이 여의치 않자 그들에게 모진말로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 자매는 그런 형부를 위해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날도 형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이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날이 안 되

어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매들의 형부가 경운기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하여 법적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달리도 마을에 유명한 주정뱅이가 저씨가 있었는데 그날 밤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농노를 끌고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부인에게 알리게 되었는데 부인이 와서 아무리 집으로 모시고자 애를 써도 그날따라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불되고 오랜 동안 씨름을 하다가 농로에 쓰러진 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잠이 들면 추울 것이라 생각하여 가마니 한 장을 덮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하기 위해 경운기를 몰고 농로를 지나가던 그 자매의 형부가 가마니를 덮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타고 넘어진 것입니다. 큰 마을 교회 작은 마을 교회 할 것 없이 안타까운 마음에 구명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작은 마을 교우들은 물론 큰 마을 교우들도 그 자매의 형부를 위해 기도하고 서명 운동들

하고 면회를 가는 등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이런 연합의 힘과 기도로 그 자매의 형부는 과실치사로 석방 받게 되었습니다. 자매들은 서로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후에 그 자매는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크고 귀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섬마을 ‘달리교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기억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장년들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온 교인의 믿음이 특심했습니다. 저녁마다 있는 집회가 있었고 학생이나 청년을 비롯한 온 교인들의 열정적인 기도로 강대상과 마루바닥은 성할 날이 없어 몇 개월을 한 번씩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한 기도로 인해 드디어 큰 마을과 작은 마을에는 분열이 끝나고 화평을 찾게 되었습니다.

푸 / 른 / 초 / 장

정요한 목사
(미주베델교회)



니다.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켜야합니다.

1. 바라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거나 잘못 설정하면 일대 낭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내 욕심 내 중심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 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Burwood라고 하는 곳에서 현직인 Bill이라는 호주사람하고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잠잘 때 방만 따로 쓰고 같이 TV보고 같이 식사하고 하면서 지냈는데, 이 Bill라는 친구를 보니 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35살이니까 5년 후인 40살이 되면 어떻게 하고, 10년 지난 50살이 되면 어떻게 하고, 노년이 되어서 정년퇴직하고는 노후는 어떻게 하고 하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봉급이 얼마이니 얼마를 저축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마이홈은 몇 년 만에 갖겠고, 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학부형이 되는데, 나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40이 되면 이렇게 하겠고, 내가 50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막연한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2. 뜨거운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은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 마당에 양동이 뚜껑을 덮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고일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뚜껑을 열지 않고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오픈된 상태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픈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6면으로 계속)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창 13:14-18)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창 13:14-18)

으로 올라갔다면 그에게는 더욱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이지만 여기고는 유혹과 환락과 퇴폐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같이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나안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신 축복

우리의 삶은 항상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후퇴와 퇴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43장을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했습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기고에서 예루살렘

유혹이 있고 환락이 있고 퇴폐가 있는 곳보다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기를 더욱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당장 눈앞의 맑은 물과 소알 평지라는


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이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높은 곳을 향한 선택이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곳이 아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

으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 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이것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주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게 생활하는 것하고 목표 없이 지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이제 나는 지금 막 결혼한 신혼생활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지 뭐'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 결혼했으니 몇 년 후에 아이를 낳고, 지금 아빠

www.rpts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5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5년 9월 4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5년 9월 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5년 9월 8일(화) - 10일(목)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서부아프리카의 로비-왈라(Lobi-Wala)



3개 국가에 거주하는 5개 부족의 통합 프로파일. 로비-왈라족은 가나,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 파소의 나라들이 접하는 블랙 볼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을 하나의 집단인 로비-왈라족으로 묶어버린다. 두 부족은 구르 언어의 방언을 사용하며 이것은 니제르-콩고 어계에 속한다. 1600년대에 왈라족은 맘프루시에서 살았으며 다가리족과 로비족을 통치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 북서부의 와에 정착했다.

공격적인 민족이다.

삶의 모습

로비-왈라족은 주로 적당한 농지를 찾아 계속 이주하는 농부들이다. 조, 수수, 옥수수 등의 곡물과 양, 소, 돼지, 닭, 후추, 약간의 쌀 등을 재배하며, 지역시장에서 곡물, 특히 수수로 만든 맥주를 판다.

있다. 그리고 관목을 키우는 보다 더 넓은 땅은 촌락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보며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물린다. 아이들이 걷게 되면 비로소 인간이 된 것으로 간주되며 적당한 무덤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왈라족은 장례식이나 무도회 때 실로폰을 전문적으로 잘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로비족은 가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종족 다 모두 조상의 사랑과 동물, 신상이나 의자를 조각해 만든다.

를 지켜보고 토양에 비옥함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조상의 영혼은 자손들을 지켜보고 가정문제에 개입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 조상의 영혼에 음식을 바치고 잘 돌봐야 한다고 믿는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공화당 지지자 63%, 동성결혼 반대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 중 3분의 2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미국 시민 3천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허핑턴포스트는 "카터 전 대통령에게 믿음은 중요하며 그는 그러한 사실을 새 회고록인 '충만한 인생: 90세의 회고'에서 다뤘다"며 "하지만, 그의 종교적 믿음도 자신의 연인과 결혼할 미국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카터 전 대통령에게 믿음은 중요하며 그는 그러한 사실을 새 회고록인 '충만한 인생: 90세의 회고'에서 다뤘다"며 "하지만, 그의 종교적 믿음도 자신의 연인과 결혼할 미국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케냐서 동성결혼 옹호 오바마 반대 시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월 하순 케냐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 케냐의 정치인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입을 다물고 집(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독설을 날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룬구 칸가타(Irungu Kangata) 의원은 케냐 국회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나태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케냐에 오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그에게 입을 다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케냐의 정치인들과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친동성결혼 입장을 이를 범죄로 여기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룬구 칸가타(Irungu Kangata) 의원은 케냐 국회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나태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케냐에 오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그에게 입을 다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아프리카복음주의연맹의 마크 카리우키(Mark Kariuki) 목사는 "우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번 케냐 방문 기간 동안 동성애가 아젠다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한다"며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며 "동성애를 케냐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BBC는 케냐인들이 트위터에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며 "동성애를 케냐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만 #KenyansMessageToObama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3,000회 가까이 트위터 전송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악관의 언론 담당 조쉬 어니스트(Josh Earnest)는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해 케냐에서 동성애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중국 청년들 무슬림 개종 급증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이슬람 개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대학교에 소재한 국립연구조사센터(National Survey Research Centre)에서 발표한 '2015 중국 종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무슬림의 약 22.4%와 가톨릭교인들의 22%가 30대 이



하의 청년들이었다. 인민대학교 불교학 교수인 웨이태동 박사는 글로벌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슬람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무슬림 여성들의 경우 보통 7명의 아이를 낳고 있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 된다. 성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리는 성적 친밀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칙상 동성애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학칙에 따르면 학교의 사명, 핵심가치, 커리큘럼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성경에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F. 그레함, "무지개 조명 킥 백악관 하나님께서 치실 것"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축하하기 위해 무지개 조명을 킥 백악관을 번개로 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IS, 이스라엘 기독교인 청소년'에 긴장

이슬람국가(IS)가 최근 이슬람 금식 절기인 라마단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때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4면에서 계속) 믿음이란 기대가 있을 때 활동합니다. 기대를 저버리고 난 다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결코 그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기대가 있을 때 일할 의욕이 생기고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기대가 없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쉽게 무릎 꿇고 맙니다. 그러나 뜨거운 기대가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환상을 주시기를 위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가로와 세로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러므로 환상을 가득 품고 이것을 종횡으로 살펴보고 기도하며 전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에 포로가 되면 부정적이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소극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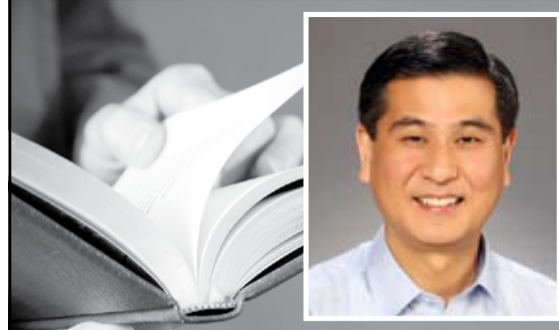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이 아닌,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닌,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의심과 근심의 구름이 있는 곳이 아닌 영원한 복락과 즐거움 노래가 있는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험하고 어두움이 있는 곳이 아닌, 빛과 사랑이 있는 곳 또한 빛나고 높은 저 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찬송가 543장의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익숙 여사께서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일본 앞잡이의 총칼 밑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부른 찬송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부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는 법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는 법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요한 목사 설교집 '나의 비전, 나의 미래' 중 발췌)

3. 환상을 가득히 꾸는 것입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7)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부 (10) 변증 교부, 히폴리투스

위조지폐를 분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이 무엇일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가짜 지폐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교육하는 것일까? 아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진짜 화폐와 친숙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라고 한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다른 종교와의 대화와 공존을 중요시하는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와 다른 자들에 대한 연구보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의 관점을 지닌 이단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질문: 초대 교회의 초기 변증 교부들은 이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하였을까?

1) 교회 역사를 보면

■ 히폴리투스

히폴리투스(Hippolytus)는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235년에 순교한 교부였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하며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던 로마제국의 수도였다. 지금도 '세계의 머리'라는 별명을 지닐 수 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도시였다. 로마를 통해 세계의 복음화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였던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열정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로마는 향후 로마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만일 로마가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다면, 로마를 정복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초기 로마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매사에 뒤떨어져 있었다. 헬라철학과 이단의 출현으로 인하여 사도들의 신앙이 순조롭게 계승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로마교회 교회의 자질도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부, 히폴리투스가 등장하였다.

역사학자 필립 샤프는 히폴리투스를 '로마교회 최초의 대학자'라고 칭한다. 로마교회에서 그의 역할이 그만큼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히폴리투스라는 인물을 두고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의 해석이 사뭇 다르다. 개신교는 그를 엄격한 교리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훌륭한 변증적 교부로 이해한다. 반대로 로마가톨릭은 그를 도전적인 성격을 지닌 분

리주의자로 단정하고 오랜 세월동안 잊어왔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가톨릭은 히폴리투스를 '대립교황(對立敎皇, antipapa)의 원조'로 여긴다. 대립교황이란, 교회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황좌에 오른 인물을 가리킨다. 3세기 초 로마교회가 분열되어 두 교황

로마교회 첫 대학자로 로고스 개념 중심으로 영지주의에 대항해 변증 이단공격보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진리수호가 궁극적 목적

에 맞서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

■ 이단 논박

히폴리투스는 많은 작품을 기록한 훌륭한 저술가였다. 그는 교회가 걸어온 역사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려하였는데 성경을 주석한 글과, 우주론, 성령의 은사, 그

지주의와 혼합되었다고 바르게 설명하였다. 기독교 진리를 흔들려는 원혼은 원수 마귀라고 전제 한 후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은 오직 자신들만 영혼의 깊은 지식을 드러낸다. 결국 진리로부터 떨어져나가 이단이 되었으며, 여러 분파로 분리된 그들은 결국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자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다"(이단

논박, 5권 1장). 히폴리투스는 이레니우스와 마찬가지로, 로고스 개념을 중심으로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변증한다. "로고스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세상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중략) 하나님께서는 전이나 지금이나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다"(이단 논박, 10권 29장). 히폴리투스는 이단을 소개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그의 변증과 과정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려는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 황제 논박

히폴리투스의 논문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톨릭은 그의 변증을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다. 물론 그의 글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교회가 곧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들은 도리어 히폴리투스가 "사도전승"이란 책을 기록한 것을 1550년대에 발견하였다며, 이 글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성례와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삼고 있다. 물론 저자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100% 이 글이 히폴리투스의 것이라고 확신한다.

(8면으로 계속)

가정사역 칼럼

이혼 및 재혼의 여러 성경적인 사례들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1)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의 화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고멜은 바람기가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호세아 선지자가 집을 비운 사이 외간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린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지불하고라도 집 나간 아내를 되찾아 오라고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따라 여러 번 아내를 되찾아온다. 그러는 가운데 고멜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의 자식인지 모를 아이들을 낳기도 한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녀들의 이름을 '로암미'(내 자식이 아님), 혹은 '로루하마'(사랑받지 못함)라고 짓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지만 호세아는 자신의 삶이 너무 기쁘다하며 탄식을

하지 된다. 그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신의 심정을 내비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지만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호세아가 사명을 위해 거리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을 쫓아다니는 숙명적 삶을 살게 된 것은, 일견 매우 기박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통해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남편을 죽인 배신자를 품은 사랑

성경에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두 개의 사랑이

이야기 나온다. 하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밧세바의 이야기이다. 두 사람 모두 유부녀로 있다가 후일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아비가일은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다가 남편 사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밧세바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아비가일은 슬기로운 여인으로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가문이 멸족할 위기에 처하자 지혜롭게 처신하여 가문을 구하고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의 적이었던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가 되었다(삼상25장 참고).

밧세바는 심히 아리파운 여인으로 다윗의 충성스런 신하 우리아의 부인이었으나 다윗의 눈에 띄어 사통한 뒤 임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임신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부인과 동침시키려 했으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부인과 동침을 거부하고 전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윗의 계략에 걸려 죽임을 당하고 만다. 자신으로 인해 졸지에 남편의 목숨을 잃은 밧세바가 비탄에 빠져있을 때, 다윗이 그녀를 궁으로 불러 후비로 삼고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의 분노를 사 곧 잃어버리게 된다(삼하11장 이하 참고).

당시 다윗이 받은 쓰라린 고통과 회개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타나있다. 후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왕이 되며 훗날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잇는다.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망가진 인생의 사랑 가운데서도 단순한 부부관계 이상으로 사랑을 위한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3) 신앙적인 문제로 부부가 결혼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이런 경우 이혼하고

로 살든지, 혹은 이혼한 뒤에 상담을 통해 재결합하라는 것이다.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혼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전7:11).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전제한 뒤, 비록 신앙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안 믿는 쪽에서 원한다면 받아주고 함께 살면서 영적인 삶의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함을 피력하였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나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나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고전7:12-14).

그는 또 이혼을 하지 않을 수

다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이혼을 선택했다면 다시 재혼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으나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으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전7:27).

앞에서 이야기된 이혼이 허락되는 두 경우의 명백한 공통점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이 깨어진다는 것이며,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와 헤어진 뒤 일정기간 후에 재혼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독신가정 Single Family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이혼으로 인한 수치심을 더 많이 느낀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인 이혼자들은 더 은폐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우리사회나 문화가 폐쇄적이고 전통적인 면이 강하고, 수치심이 기만 된 문화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전통적인 이혼제도가 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 오전 9:30~오후 8:00

- ◆ 기독교서적
- ◆ 기독교용품
- ◆ 일반서적
- ◆ 서예용품 전문
- ◆ 2016년 달력제작

CJ 택배 ups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전문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개인 없다.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조직과 공동체도 없다. 겉손으로 위장하고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실 된 자세이다. 진리와 양심이 깃뻛히다면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진리를 세우고 양심을 지켜야 한다. 진리와 양심 그것만이 싸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

자기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반목하며 싸우게 된다. 이런 것은 기도할 문제이지 싸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싸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문제이다. 겉손을 가장하여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의롭게 부각시키려는 자리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5)

기도는 우리의 본업이요 우리만의 특권이다(하)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이 열리며 착고가 벗겨졌다”(행 16:25-26)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원망과 섭섭함을 기도로 다스리며 이겨냈기 때문이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니 착고가 풀렸다.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참 기도이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방법은 서

라. 기도를 통한 교제와 하나님의 응답은 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요, 구원의 소식이며, 행복의 비결이요, 영생하는 양식이다(요6:53-58).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

와 인도를 받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다.

성도들은 세상에 다시 없는 하늘의 신령한 백성들과 교제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죄인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필요한 시간과 물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으며,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늘 군대에 복무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특권은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사단의 공격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의 날이 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다. 또한 시몬 베드로에게는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하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눅22:31-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정행복학교 마지막 모임은 감동 그 자체였다. 주일 저녁 예배 후 다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장작 5시간을 걸쳐 가진 모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열싸우고 "나 같은 사람만나 당신 너무 고생하고..." 말을 잊지 못하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흐느껴 우는 눈물물 속에 아픔과 진실을 보았다.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단어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서로 악악거리고 의심하고 아파하고...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아줄 수 있지만 자기 가정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려하나...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란 다.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 겨우 3-4명으로 엮어진 내 가족, 그들은 서로 닮았다. 코드 눈도 말하는 것도 닮았고 걷는 것도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심지어는 병도 닮아서 같은 병을 앓는 다는데.. 이렇게 몇 안되는 나를 닮은 가족 속에서도 조화롭지 못해 서로 '너 때문에'라고 까닭을 찾고 생계를 내고 조금만 더 섬겨달라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목청을 높이는 우리네들...

어느 지혜로운 아내는 겨울옷을 정리하면서 남편 양복주머니에 100불짜리 돈을 하나 넣어서 가방 안에 겨울옷을 챙겨 넣었다고 한다. 남편이 다시 겨울옷을 꺼내 입을 때 그가 그 주머니에서 100불짜리를 발견하면서 어? 내가 언제 이런 큰돈을 넣어놨지? 하고 흥재했다고 너무나 좋아할 것을 상상하며 그 아내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글이다. "응급처치법을 아세요?" "당신을 보니 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피곤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내 마음속을 헤매고 다니시느라..." "아버님이 도둑이셨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훔쳐갔어요?" "목사님, 어제 꿈에 예수님 만나셨어요?" "내 평생에 그런 설교는 처음 들었습니다."

와! 이런 보석 같은 말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려면 주위의 사람들을 아절하게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행복천사가 되기에 충분하리라.

남자들보다 언어적 능력이 좀 더 발달한 여자들은 언어로 자극을 받아야만 수공이 간다. 여자들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갖고 마음의 간격을 좁혀간다. 그래서 누군가와 수다를 즐긴다는 것은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리라.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싸워도 보고 안 되면 소송까지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보는데 정작 관계가 서원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별로 애써보지도 않고 내버려둔다.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애쓰고 참고 견디며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진짜 질긴 인연인데...

어떤 노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그 아이를 계속 찾아 헤맸는데 우리가 찾는 행복이 아마 이 같을 지도 모른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파랗고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 것처럼 까맣게 잊고 지낸다. 그러다가 마음이 불편해져야 하늘의 고마움을 깨달으며 정말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간다.

매일 대하는 바람과 공기, 교회, 매일 보는 가족의 얼굴,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들...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또 내일도 만나겠지만 그래도 안보면 못 살 것 같은, 하늘이 내 곁에 준 사람들... 그들의 기쁨과 슬픔, 고통까지라도 싸우며 그들과 맺은 인연이 후회스럽지 않게, 그리고 나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고백을 들을 때까지 죽도록 사랑만 하리라.

한 여름의 진초록과 파란 하늘이 겹쳐지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요즘, 있는 힘을 다해 주고 또 주고, 받고 또 받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고 또 받았는지 분간이 가지 않는 '좋은 사람'들 속에서 '조화롭음'을 만끽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소서.

정죄와 비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기도생활 게을리 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 받아

에서 단호히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빌2:3-5).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

바울과 실라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묶인 채 옥에 가두어졌다. 이쯤 되면 인간의 마음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원망의 마음이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좌절이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문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없게 산다고 생각한다. 즐거움도 특권도 포기하고 재미가 없어 어떻게 사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정말 예수 믿는 참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만큼 특권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눈을 밝게 하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금 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특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사19:7-10).

최악으로 영원한 불 못을 면치 못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세상이 주는 일시적 평안이 아닌(요 14:27),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보호

34)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받은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고(마26:69-74),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고 목을 매 자살했다(마27:3-5).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의 특권을 등한시 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 주신 백지수표를 버리는 것과 같고, 거대한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를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기도는 우리의 본업이요, 특권이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7면에서 계속)

에 로마가톨릭은 히폴리투스의 "모든 이단에 대한 논박"을 일찍 감추었을까? 이 책의 9권에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이다. 우리는 그 당시 로마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교황과 관련된 사건을 접하게 된다. 그 당시 로마교회의 교황은 제필리누스(Zephyrinus)였다. 히폴리투스는 교황이 양태론자(성부와 성자가 동일주체라고 믿으므로 삼위일체를 부정함)임을 주장하며 공격하였다. 그런데 그가 노예 출신으로 지나치게 세속적이며 교활한 제필리누스(Callistus)에게 교황 자리를 계승시켰다. 무엇보다 그는 신학적으로도 정통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인물이었다.

히폴리투스는 제필리누스의 과거와 그의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인신 공격성의 내용을 여과 없이 길게 서

술하였다.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전 교황과 현 교황이 합작하여 교회를 바르지 못한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제필리누스의 영향력에 대하여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커다란 당을 짓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제필리누스 당의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이단 논박, 9권 7장). 결국 그는 상대를 로마교회의 교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교황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비록 두 교황은 동시에 체포되었으며, 같은 날 순교를 당하였다. 유배지에서 그들은 화해를 했고, 이 사건으로 교회의 분열이 끝나게 되었다.

교황을 절대시 하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이런 내용의 글과 사건을 감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에서는 그의 사적인

동기보다, 주로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진리를 변증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교황에게 바른 말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는 강직한 성격을 지녔던 엄격주의자였다.

2) 성경이 보인다 - 베드로전서 2:1-3, 2:10-22; 골로새서 2

초대교회에 나타나 성도들을 크게 현혹시키며,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며 놓았던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성경말씀대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활동이 더욱 노골적이며 담대해지고 있다. 전에는 숨어서 진리를 휘방하던 세력이 지금은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으로 이상하다. 조금만 들어보고 읽어봐도 마치 공상 소설을 읽는

듯 우스꽝스러운 이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 뿐인가?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어보지 못했던 식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신기하다며 쉽게 바른 길을 벗어나는 성도들도 있다. 암흑으로 가득 찬 이 시대이다. 마치 가짜 지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원수 마귀의 전략도 성도들의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성경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진리에 서는 것이다. 상대의 공격을 의식하면 할수록 더욱 진리에 서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2015년 7월 6일(월) ~ 16일(목)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조성근 목사

gstcenter98@gmail.com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검색



2015년 부흥성회 일정

Table with 8 columns (1월 to 8월) and rows of dates and event details for the 2015 Revival Conference.

선교 편지

영화선교

하나님의 문화 개척과 확장을 위해 부름받아 나선 영화선교사 이성수가...

작은 소년의 물고기와 보리떡을 받으시고 그것에 축사함으로 오병이아의...

저는 120 한국교회 집회에 이어 캐나다와 미국의 120교회 집회를 주의 은혜와...

또한 DVD를 제작하여 매집펀드 형식으로 성도들이 1장 구매하면 원주민 마을과...

이어서 남미와 유럽,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집회를 계획했으나 지난 5년에 걸친...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아gabe 되었음이 큰 성과였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 헌신한 이후 늘 입히...

“뷰티풀 차일드”는 50만불의 재정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3명의 투자자에 의해 20만불의 투자가 있었고 30만불은 한국, 미국, 캐나다의 많은...

오허려 친구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손만 의지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몇년간 아내에게 부여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아내가 신학을...

- 기도제목
1. 성경통독시 주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강력하게 부여주셔서 다니엘 금식기도를 합니다.
2. 수년전 제주열방대학에서 SBS(귀남적성경연구학교)를 할 때부터 구상했던 소설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3. 교회를 집회하며 선포했던 다음 세대를 위한 영화 "I AM CHURCH" 리서치 중입니다.
4. 마지막 뷰티풀차일드 DVD 보급을 위해 하반기에 뉴욕과 토론토를 방문합니다.
5. 내년엔 시나리오 작업이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전국 교회 펀드레이징을 위한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 맹연속 중입니다.
7. 바닷, 후송, 하천이 합치는 곳의 반도보다 작은 육지(사11:15).
8. 자기 눈에 물대기의 뜻,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로운대로 함(고사성어).
9. 바둑 두는 관(왕상7:17).
10. 이치로 보아 마땅히 그러할 것임(눅23:41).
11. 열통(삼하18:14).
12. 두 사람의 말이 어긋날 때 판사 앞에서 대면시켜 따짐(욘9:32).
13. 코끼리의 어머니(야5:14).



(13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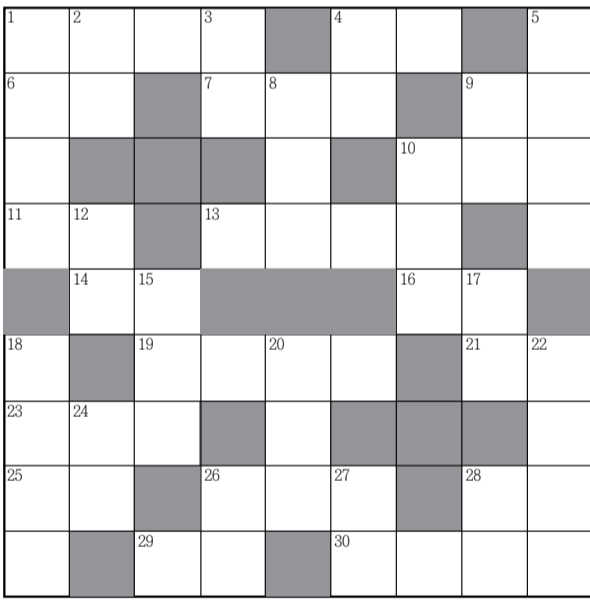
또 돌아가시며 내년에는 꼭 진료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진료하고 싶다는 아쉬움을 남기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 1. 시온교회의 안정화와 다문화가정 예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저와 제 아내가 이곳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루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3.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4. Rio Azul교회의 Maria Ortiz 자매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열약한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충실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매입니다. 신실한 청년이기에 그를 도와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축구 장학사로 노스캐롤라이나의 Montreat College에서 공부를 시키려 합니다. 이를 위해 빌리그래함 목사님 출신교회인 Christ Community Church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청년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변한 그가 다시 돌아와 교회와 지역을 위하여 헌신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김혜린 선교사 올림.
이메일:

십자말 • Cross Word (89)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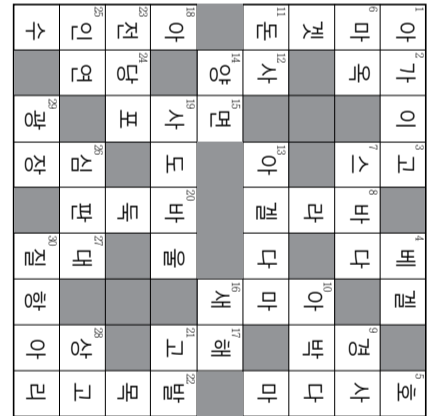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 1. 고린도교회 신자로 바울이 반가이 맞음(고전16:17).
4. 베냐민지파의 한 족속의 조상이다(민26:35).
6. 갓성의 블레셋 왕 아가스의 부친(삼상27:2).
7. 유다지파에 있는 마세라 근처 골짜기(대하14:10).
9. 비스듬히 기울어진(행27:39).
10. 아하수에로 왕의 일곱 시종관 중의 한 사람(에1:10).
11. 돼지우리(명).
13. 피발이라는 뜻(행1:19).
14. 두 면(출32:15).
16. 신년(창47:18).
19.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이렇게 변했다(골1:1).
21.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행위(에6:2).
23. 물건을 담보로 돈을 꾸어주는 곳(명).
25. 내력, 연분(왕상3:1).
26. 사사, 왕, 제사장들이 재판할 때 앉았다(롬14:10).
28. 장사를 하는 사람(잠31:14).
29. 넓은 마당(느8:16).
30.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애4:2).

<세로 푸는 열쇠>

- 1. 뜨겁고 산의 별명이다(계16:16).
2. 집(사5:8).
3. 소아시아 서남해 중에 있는 작은 섬(행21:1).
4. 소바왕 하닷에셀의 수부, 낮이 많음(대상18:8).
5.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생김(고사성어).
8. 욥의 친구 엘리후의 부친(욘32:2).
9. 언행이 겸박하고 천박함(삿9:4).
10. 다윗의 군대장관의 한 사람(대상12:18).
12. 겸손하여 응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함(행10:29).
15. 결혼식 때 신부가 쓰는 면박(상식).
17. 바다, 후송, 하천이 합치는 곳의 반도보다 작은 육지(사11:15).
18. 자기 눈에 물대기의 뜻,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로운대로 함(고사성어).
20. 바둑 두는 관(왕상7:17).
22. 발목에 거는 고리(민31:50).
24. 이치로 보아 마땅히 그러할 것임(눅23:41).
26. 열통(삼하18:14).
27. 두 사람의 말이 어긋날 때 판사 앞에서 대면시켜 따짐(욘9:32).
28. 코끼리의 어머니(야5:14).

십자말 정답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3 columns: Subscription Type (1 year), Country (USA, Canada, Korea/S. Asia, Africa), and Price (\$100, \$110, \$190).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Email, and a checkbox for 'I am not a robot'.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DYNAMICS 다이내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Tae Kwon Do, Karate, MMA. Church t-shirt printing and logo services. www.dynamicsworld.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Tel: 213,487,5446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